

# ‘악취와의 전쟁’ 전북도, 생활악취도 잡는다

관련 조례 개정...배출 허용 기준 강화·보조금 지원 상한선 없애 생활악취 관리 규정 신설...도민 불편 해소 위해 적극 나서기로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북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방지 지원금을 늘리고 생활악취까지 방지하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악취방지관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악취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된 악취방지조례는 사업장 악취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 악취방지시설 신설 및 개선비용 보조금 지원의 상한선 규정을 삭제해 악취방지개선사업을 용이하게 한다. 평소 시장·군수가 악취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게 하는 것 외에 악취 민원 등이 제기 될 경우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함께 합동으로 시설을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염 부하량이 높으면서도 자체 환경

관리인력과 자금부족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이 어려운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아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악취배출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상의 경우 기존의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범위를 확대하여 유치원, 각급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의 악취배출시설까지 적용 시킴으로써 악취배출시설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악취검사,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의 악취개선 노력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기존의 악취방지개선사업 등을 충실히 추진하는 한편 악취방지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개정된 조례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해 악취방지 및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가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사전심사청구제’와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민원인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복잡한 행정절차의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 종류별로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민원 가부와 신청 절차 등 사전심사 결과를 알려준다. 대상 민원은 건축허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공장설립승인, 묘지설치허가, 식품영업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이다. 시는 총 7개 부서의 15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추후 지속해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처리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민원처리에 대한 전 과정을 안내하고 상담한다. 해당 민원의 시작부터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의 편에서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해 주고자 마련됐다. 한편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정읍시청 원스톱민원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민원인 눈높이에 맞춰 사전심사청구제 등 운영 정읍시, 행정서비스 강화

## 남원 ‘물방개 워터파크’ 피서명소 부상

무료 입장에 어린이·성인 등 하루 평균 500여명 찾아

남원시 도룡동 동사무소 인근에 개장한 도심 물놀이시설인 ‘물방개 워터파크’가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 지난 31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

어 개장한 물방개 워터파크는 하루 평균 350~550여명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는 피서명소로 자리 잡았다. 시는 물방개 워터파크를 추석 명절 전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에는 쏠다. 시는 어린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했다. 또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자 물놀이장과 저장탱크 청소, 급수·배수·소독·여과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피서와 쉼터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보강했다. 사용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료이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 고창군, 음성·고인돌박물관 입장객 ‘고창사랑상품권’ 지급

고창군은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고창음성과 고인돌박물관 유료입장객에게 ‘고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대신 지역화폐를 제공해 방문객

이 보다 많은 지역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성인 입장료가 2000원인 고창음성은 1000원의 상품권을, 입장료 3000원인 고인돌박물관은 2000원의 고창사랑상품권

을 지급한다.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1차 발행 규모는 23억원이다. 고창지역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 등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모든 곳(7월 26일 기준 1400여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고창음성은 드라마 ‘녹두꽃’, ‘미스터션사인’ 등 주요 장면이 촬영된 곳이다. 지난해 유료 입장객만 2만4000여명에 방문한 관광 명소다. 또 고창고인돌박물관은 고인돌 유적을 전문적으로 해설하고 선사시대 유물이 보존·관리되고 있는 1종 전문박물관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서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 관련 순천시 “시민 환경권 침해” 반대 입장 밝혀

순천시가 지역 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서면 구상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접수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 법규 저촉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순천시에 요청했다. 순천시는 지난 30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대상”이라며 “시민 환경

권을 침해하고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는 시설 설치를 긍정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순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약 3.5t, 인근 여수와 광양을 합쳐도 약 7t에 그치는데 하루 48t 소각시설은 불필요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하루 71t으로 장흥(58t), 광주(24t)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아름다운 기부 영원히’...신안군청 ‘명예의 전당’ 설치 지역 인재 육성·교육 활성화 장학기금 기부자 감사 표시

“아름다운 기부 영원히...” 신안군이 군청 본관 1층 현관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했다.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학기금조성에 참여한 기부자에게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고 지속적인 기부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명예의 전당은 길이 4.0m, 폭 2.5m로 (제)신안군장학재단이 설립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 기부한 기

업·단체·개인 등 73개의 이름이 현역됐다. <사진> 명패는 기존 기탁자의 기탁액 변동을 고려해 탈부착식으로 제작했다. 앞으로 새롭게 기탁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다. 신안군은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기부자들을 초청해 9월에 열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순창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순창지역자활센터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활센터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복지부가 지역자활센터 수행 사업의 프로그램 수준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239개 지역자활센터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02년 설립된 순창자활센터는 순창군에서 자활사업을 위탁받아 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내실 있는 사업운영과 경쟁력 및

신규 사업 개발과 취·창업 및 탈수급 촉진, 지속적인 참여자 교육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산업과 인구 구조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형(118개)과 도농 복합형(54개), 농촌형(67개)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센터는 상위 10~30%에 해당하는 농촌형 우수기관에 선정돼 추가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권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